

## DDA 농업협상, 최근 논의동향

우리나라 쌀 협상은 협상참가 신청 9개국과의 1차 회의를 마친이후, 미국과 중국 등과는 2차 협상까지 거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DDA 농업협상도 지난 6월 초 G-20와 케언스그룹의 공동제안 배포 등 7월말까지의 모델리티에 대한 기본골격을 합의 도출하고자 주요 그룹별로 숨 가쁜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쌀 협상의 특성상 DDA 농업협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근 일련의 DDA 농업협상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쌀 협상에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이 1차 접촉에서 DDA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인 민감 품목에 관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쌀 협상을 DDA 농업협상 전체와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DDA 농업협상의 움직임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1. 민감품목의 선정 방식이 쟁점

WTO 농업위원회는 지난 3, 4월에 이어 6월 2~4일에도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간 쟁점에 대한 의견조율을 시도하였다. 이번 특별회의는 관세·보조금 감축방식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의 지침인 모델리티 기본골격(framework)을 7월말까지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며, 3대 핵심 분야인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에서 대체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분야를 찾아내는 작업위주로 진행되었다. 금번 특별회의는 비록 결정적인 진전은 없었지

만 이전 회의에 비해 쟁점별로 의장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합의점이 가장 많이 도출된 분야는 국내보조였으며, 수출경쟁은 수출신용과 보조를 둘러싸고 미국과 EU의 입장차이 해소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시장접근은 G-20과 G-10간 대립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의 최대 관심인 시장접근에서는 높은 관세를 더욱 많이 감축하는 조화공식의 원리 아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신축성을 부여하는 대신, TRQ 증량을 통해 추가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민감품목의 선정방식과 융통성 부여 방식과 정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2. 시장접근에서 G-20와 G-10의 대립

한편 칸쿤 각료회의 이후 농업협상에서 미국-EU와 대립구조를 형성해 오던 G-20은 6월 특별회의가 개최되기에 앞서 시장접근분야에 관한 새로운 제안서를 내놓았다. 브라질, 인도, 중국 등을 주축으로 한 G-20은 제안서에서 농산물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고율관세의 감축 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관세상한을 설정하고, TRQ 증량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율 관세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상한을 설정하되 매우 제한된 품목에 한정해서 관세상한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며, 민감품목과 관련해서 관세감축에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으나, 관세감축과 TRQ 증량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시장접근을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포함된 G-10은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적인 관세감축의 필요성과 함께 관세상한 설정 및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의 의무증량 반대를 주장하는 공동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 3. 7월초 기본골격 초안 제시

지난 6월 초 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G8 정상들은 DDA 협상을 정상과도에 올려놓는데 동참하기로 하였다.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오는 7월말까지 DDA 협상의 기본골격안을 마련해 핵심쟁점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기도 하다.

WTO 일반이사회 오시마 쇼타로 의장은 무역자유화 확대를 촉구한 도하 각료회의 선언을 기초로 농산물 무역자유화와 비농산물 시장접근, 싱가포르 이슈 가운데 무역원활화 부문에 대한 협상타결이 주요 목표임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일괄 합의안’을 마련하여 7월초까지 문서로 배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농업위원회 그로서 의장도 앞으로 개최되는 특별회의에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의장초안’을 배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6월 하순과 7월 중순을 전후해서 개최될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모델리티 기본골격안 마련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회원국간 의견수렴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기본골격안에 반영될 문안을 마련하는 작업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업협상을 둘러싼 기존의 대립구조가 재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골격안의 합의시한까지는 공식회의가 두 차례밖에 없어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골격안에 대한 합의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DDA 농업협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7월말까지 협상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 대선 등의 일정에 따라 DDA 농업협상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